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마음을 다해 들어도, 보도할 수 없는 이야기들



“기자님. 죽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댈 곳이 없어서 정말 마지막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제는 수년도 더 지난 오래된 기억이지만, 뇌리에 남아 잊히지 않는 울음이 있다. 기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시절, 제보자가 늦은 밤 엉망으로 취해 전화를 걸어왔다. 30대 남성 A씨. 그는 유명 대기업 산하 한 지점의 팀장이었다. A는 회사에서는 성실한 중간 관리자였고, 집안에서는 충실한 가장이었다. 회사에서 그가 원치 않던 문제를 겪기 전까지는.

A는 어느 날 조직 담당 임원에게 불려갔고, 실적 목표를 맞추지 못하면 지점이 사라질 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자신

은 물론, 한 식구처럼 일하던 지점의 계약직 직원들도 모두 흩어져야 할 위기였다. 현실을 듣고 암담해진 그에게 임원은 돈을 좀 마련할 수 있겠냐고 물어왔다. 실적 목표치를 잠시 맞췄다가, 금방 돌려주겠다는 것. 일터를 지키고 싶었던 그는 임원의 지시에 따라 개인 자금을 임시로 투입, 실적 목표 부족분의 일부를 맞췄다. 그가 가진 재산의 거의 전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었다. 사실상 회계부정임에도 관련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벌어지는, ‘관행’의 탈을 쓴 갑질이라고 했다.

문제는 해가 바뀌고 벌어졌다. 그 임원은 본사로 승진 발령이 났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장기간 묵살 당했다. 가까스로 닿은 마지막 연락에

서는 해고 협박을 들었다. A는 그제야 자신이 임원의 승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 속에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시작됐고, 전 재산을 담보로 받았던 거액의 대출은 그의 목을 조여왔다. 법률 상담을 전전했지만 번번히 좋은 대답을 듣지 못했다. 가진 증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어서다. 임원을 만나기 위해 본사 앞을 전전하던 그가 한계치에 달했을 때, 마지막으로 구원 요청을 한 창구가 기자의 메일이었다.

A와 연락이 닿고 전후 사정을 상세히 들은 나는 데스크에게 취재 보고를 올렸다. 당장 취재 허가가 떨어졌다. 공론화되면 상당히 논란이 될만한 이야기였기에. 그런데 기사를 완성해두고도 한참을 보도할 수가 없었다. 제보자이자 피해자인 A가 망설였기 때문이었다. 실낱같은 희망일지라도 공론화 전에 원만한 해결의 가능성을 놓고 싶지 않아 했다. 보도를 통한 공론화가 모든 문제에 해결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기다렸다.

연락은 계속 이어졌고, 보도할 수 없는 이야기만 계속 쌓여갔다.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하게 소식을 전해오던 그의 목소리에는 점점 더 짙은 취기와 울음이 섞였다. 어느 날은 취재를 위한 물음보다 위로의 말을 건네는 시간이 더 길 때도 있었다. 위로하며 기록을 남기고, 또 기다림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은 갑자기 예상보다 더 수월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언론 취재와 공론화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경영진이 피해자와 사적화해를 추진했던 것이다. 생각지 못했던 좋은 결과였다. 피해자와 알게 된 지 수개월, 처음으로 그의 웃음소리를 듣게 됐다. 매일 절망과 울분에 잠겨있던 피해자가 기뻐하는 목소리를 듣고 제일 먼저 든 감정은 안도였다. 그는 이제 퇴근길에 회사 근처 편의점을 전전하며 소주병을 쥐는 대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다. 분명 잘된 일이었다. 긴 시간 곁을 지켜준 기자님의 앞날을 늘 응원하고 지켜보겠다는 진심 어린 덕담을 듣는 것을 끝으로, 아마도 마지막이 될 A와의 전화를 마무리했다.

통화를 마친 후 작성해두었던 기사 파일, 피해자의 정보, 회사의 부당함에 맞서 함께 싸우기 위해 모았던 증거들을 휴지통에 넣고 나니 맥이 풀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긴 시간 마음을 쏟았던 취재건을 덮게 되었기에, 허탈한 마음을 누르려 해도 쉽지는 않았다. 제일 마음이 무거웠던 것은 취재에 시간을 할애하는 데 동의해줬던 데스크에게 전화를 거는 일이었다. 결국 상사 앞에 서면 기자도 어느 정도는 직장인일 수밖에 없다. 야심차게 긴 시간을 쏟아 진행해온 업무(취재)의 결과물이 없다는 보고를 올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어렵게 건 전화, 데스크는 침



묵 끝에 말했다. 그래, 알았다. 잘됐네.

이후로도 유사한 사례는 술하게 많았다. 마음을 다해 듣고 또 들어도, 보도로 이어질 수 없는 일들. 보도 직전에 취재원이 마음을 돌리는 일도 있었지만 이런 사례보다 더 많은 것이 사적인 민원이다. 이 경우 한참 듣고 나니 개인 간의 감정적 억하심정이나 사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인 일들이라 보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제보들이 더 많았다. 감정적 해소를 위해 언론을 찾았던 이들에게 보도할 수 없음을 고하면 종종 끝은 '기레기'로 끝나기도 했다. 기자들이 제대로 듣지 않고, 자극적인 것만 찾는다는 것이다.

기자의 경청은 당연할까. 듣고 또

들어 뉴스를 전하는 직업이어서, 제보자들이 건네오는 모든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이기는 쉽지 않다. 진심을 다해 시간을 쏟아 들었음에도 그 노력을 기사로 남길 수 없는 경험들이 반복되면 지치기 마련이다. 기자가 특하면 원색적인 비난을 받는 요즘의 사회적 풍토에서는 더욱 그렇다. 기자도 사람인지라.

그럼에도 회복은 있다. 취재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은 또 취재 과정에서 회복되곤 했다.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하는 것은 제보자, 취재원들의 말과 눈빛이었다. 억울하고 힘겨운 처지를 언론에 호소할 수 있어 위안을 얻었다는,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던 순간에 보도가 버팀목이 되었다는 그 말들이. 🙏